



삼천2동 도시대학협의회, 설맞이 명절음식 전달

전주시 삼천2동 도시대학협의회(회장 허정)는 2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힘든 명절을 맞이하는 홀로어르신 52세대에 명절음식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삼천도시대학 회원들은 마을기업인 '삼천마실' 카페에 모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한 가운데 떡국떡, 모듬전, 과일, 밀반찬 등 명절음식 52세트를 정성껏 준비해 독거어르신 가정에 전달했다. 허정 회장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께 따뜻한 명절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싶었다"며 "설을 앞두고 관내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저희가 준비한 명절음식을 드시고 즐겁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삼천1동 지사협, '설맞이 이웃돕기'에 앞장

전주시 완산구 삼천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상호)는 설 명절을 맞아 26일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명절음식과 함께 현금 30만 원을 삼천1동 주민센터(동장 김성수)에 기탁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준비해 온 떡과 부침개 등 명절음식과 성금은 관내 저소득층 가정과 독거 어르신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삼천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년 명절마다 명절음식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에 더욱 앞장서고 있다. /김윤상 기자

남원 산내면 심화선원, 이웃돕기 백미 50포 기탁

남원시 산내면(면장 하진숙)은 지난 25일 심화선원 여강(興剛) 주지스님이 설을 맞이해 백미 10kg 50포(155만 원 상당)를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심화선원은 가습정로원 연화사가 삼화마을로 이전하면서 사찰명을 변경하였다. 여강스님은 벌써 8년째 면사무소를 방문해 쌀을 기탁해왔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쌀 기부를 통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여강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과 홀로 자립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설맞이 장보기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직원 일동 모래내시장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 구매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가 2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역 상권 침체와 매출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강동화 의장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전주 모래내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농수산물을 구매하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동화 의장은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시민들께서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제일라이온스클럽, 인후2동에 생필품세트 후원

전주제일LJ라이온스클럽(회장 유상철)은 지난 25일 인후2동 주민센터(동장 이진숙)를 방문해 설 명절을 맞아 더욱 소외되기 쉬운 이웃을 위해 백미, 선물세트, 라면, 화장지 등 1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세트를 기탁했다. 이날 전주제일LJ라이온스클럽회원들이 정성을 모아 준비한 생필품 세트는 관내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유상철 회장은 "설 명절만큼은 이웃 간의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필품세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 사매면, 설 맞이 이웃돕기 기부 물결 이어져

남원시 사매면(면장 서규광)은 설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 및 기업과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기부 물결이 이어져 어느 때보다 훈훈한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과 26일, 사매면교회연합회(회장 이태규목사)가 백미 10kg 40포(120만 원 상당), 얼굴 없는 천사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백미 20kg 50포(275만 원 상당), (주)세일 환경블럭 현금50만원을 기탁했다. 서규광 사매면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과 가정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기탁에 동참하여 주신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돌봄이 필요한 취약가구 및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기탁자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여 훈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승환 교육감, 설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

김승환 교육감이 설 명절을 맞아 26일 익산 작은자매의집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익산 작은자매의집은 지적장애인을 보호·교육하고, 재활을 돕는 사회복지시설이다. 현재 30여 명의 지적장애인인 30여 명의 직원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족 교유의 명절 설을 맞아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17일부터 28일까지 사회복지시설 32개소를 찾아 1,700여 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여해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은행, '설맞이 선물꾸러미' 나눔

전북은행이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명절나기를 돕고 나섰다. 전주시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26일 전주부시장에서 박형배 부시장과 김영민 전북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설맞이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전달식을 가졌다. 전북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자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시는 이날 전북은행이 기탁한 500만 원 상당의 선물꾸러미 200상자를 노숙인 쉼터와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민 전북은행 부행장은 "이번 나눔 행사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